코픽스 내리고, 대환대출 초읽기 은행 금리경쟁에 인하 체감 기대

4월 코픽스 전월비 0.12%p 하락
주담대 변동금리 6개월마다 갱신
이달·내달 재산정 차주 이자 감소

대환대출 플랫폼 오는 31일 출범
은행권 간 금리 인하경쟁 불가피

대출금리가 하락할 전망이어서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기존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들의 금리인하 체감이 곧 시작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최고가를 기록했던 코픽스 재산정시기가 내달이면 돌아오고, 이달부터 대환 대출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4%로 전달보다 0.12%포인트(p) 하락했다. 금리 수준 자체만 놓고 보면 지난해 9월(3.40%)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대출 시점에 따라 금리차이가 심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공격적인 금리인상기로 인해 곡소리가 나오자 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실시했지만 기존 차주들이 체감을 하지 못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4.3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때 재산정주기가 돌아온 차주의 경우 지난해 5월(1.98%) 대비 2.36% 올라 기존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납부했다.

또한 지난달 발표된 2월 신규 코픽스(3.53%)는 지난해 11월 대비 0.81%p 하락했지만,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2.96%)과 비교하면 0.57%p가 높다. 이때 변동 주기가 도래한 차주는 오히려 대출금리가 올랐다.

반면 이번 4월 코픽스는 3.44%로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코픽스(3.98%)보다 낮아 만기가 도래한 기존 차주들의 경우 금리가 떨어졌다.

은행권에서는 이달과 다음 달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차주들부터 이자체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1월 코픽스(4.34%)는 6개월 뒤인 5월 코픽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p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오는 31일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을 앞두고 있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으로 차주들의 이자부담도 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총 53개의 금융회사와 23개의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사들의 대출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한 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사의 대출금리를 한 번에 비교하기 때문에 은행권 간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재산정주기가 돌아와 월 납입액이 약 3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환대출 플랫폼까지 이용하게 되면 이자 부담을 조금은 덜 듯 하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달부터 금리인하를 체감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차주들이 체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환대출플랫폼 흥행을 위해 은행권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나 우대금리 정보도 제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김태오 "변화 즐기며 혁신, 생존의 필수 조건"

〈DGB금융그룹 회장〉

DGB금융그룹 '창립 12주년'
금융권 최초 챗GPT 활용 기념사
고객중심·임직원 원팀 등 강조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DGB금융그룹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기업 경영의 변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변화를 즐기며 혁신하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8일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창립 12주년을 맞은 오늘은 지금까지 이뤄온 도전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면 고객이 원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며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금융그룹 임직원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제고하고 전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ONE DGB' 가치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스크린골프대회 ▲iM세일즈맨 쇼프로그램 ▲미술품 전시전 ▲'iM 하이' 애플리케이션 모의투자대회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인(人)' 다운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엔 김태오 회장을 비롯해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김성한 DGB생명 대표, 김병희 DGB캐피탈 대표 등 10개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금융권 최초로 '챗GPT'를 활용해 CEO 기념사를 생성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빠르고 확실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특별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지속해서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고객 중심의 마인드셋 강화 ▲그룹 임직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원 팀(One Team), One DGB' 등 두 가지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고객은 DGB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모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 만큼 변화된 고객의 요구에 집중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금융인의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DGB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로 명명해 권위를 격상시킨 '더 디그니티(The DIGNITY) 대상'에 전략적 ESG 활동 등으로 그룹의 위상을 제고한 김상헌 DGB금융지주 CSR추진부 부장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그룹의 지속발전과 성과 향상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 25명을 포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우리금융, 부동산 PF 시장 5000억 지원

블라인드 부동산 PF론펀드 조성
정비사업 자금, LH임대주택 지원

우리금융그룹이 약 50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부동산 PF론펀드 조성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블라인드 부동산 PF론펀드란 주요 출자자의 투자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설립하고 자산운용사가 PF사업장을 선별해 대출을 집행하는 펀드를 말한다.

우리금융그룹은 5000억원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계열사인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등을 통해 블라인드펀드를 설정하고 우리은행 등 계열사로부터 출자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유동성 지원은 최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신규자금지원 3000억원과 LH매입을 약정한 임대주택 사업장의 자금지원 2000억원으로 진행된다.

최근 한·미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부실 우려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PF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사, 시공사, 수분양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치매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하세요

금융꿀팁 200선

중대질병 상태시 직접 청구 어려워

#.부산에 사는 박모씨는 아버지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해 산소호흡기를 달고 거동도 어려운 상태가 됐다. 마침 아버지의 보험을 통해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박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위임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병세가 악화된 박씨의 아버지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법적인 위임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근 중대질병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대질병 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18일 밝혔다.

치매보험 및 치명적질병(CI)보험 등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박씨의 경우 보험금 청구 민원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환자인 아버지의 정당한 위임없이 법적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법적 대리권을 얻어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했다.

결국 박씨는 후견인 조사 및 감정 등의 과정을 거쳐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후에야 뒤늦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만일 박씨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미리 이용했다면 훨씬 수월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가능하고,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 지정할 수 있다.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가입비용 없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을 통해 지정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화재보험協 위험관리 플랫폼 '브릿지' 오픈

50년간 수집 데이터 유기적 연결
종합위험 플랫폼 확대·발전 추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위험관리 정보를 제공할 일반보험 플랫폼 브릿지(BRIDGE)를 론칭했다고 18일 밝혔다.

브릿지는 협회가 50년간 수집한 위험관리 및 사고정보 데이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손해보험회사, 특수건물 관계자 등 위험관리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제공해 일반보험의 활성화 및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개발했다.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은 ▲지식&통계 시스템 ▲위험관리 서비스 ▲보험지원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데이터 시장 등이다.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방재와 보험의 협업으로 탄생한 일반보험 플랫폼 BRIDGE를 국내·외 리스크 관련 정보가 집결된 종합위험 플랫폼으로 확대·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